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의 큰 주제(big topic)인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에  
주목해보려 합니다.

시력이 좋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의자 위에 서있는 것을 눈치 채셨을 것입니다.

미리 말씀 드리지만, 제가  
제 키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콤플렉스가 없습니다. 전 남자 평균 신장입니다.  
최소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의자 위에 서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밤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을 믿는 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구절을  
듣고 또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믿음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신뢰가 무슨 뜻인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의자 위에서 뒤로 떨어지고자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그냥 이대로 뒤로 떨어진다면,  
저는 부상을 당할 것 입니다.

정말 그럴것죠?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다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죠?

전혀 그것은 바라지 않으시죠. 그래서 자원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고,  
제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자원자가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저를 좋아하는 아는 사람

저를 떨어뜨리지 않을 사람  
그럼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게리 씨 입니다. 게리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저는 게리 씨를 몇 년간 알고 지냈습니다.

게리 씨는 매우 신뢰할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제가 게리 씨를 신뢰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빈말이 아닙니다. 저는 게리 씨를 믿습니다.

저는 게리 씨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게리 씨가 저를 좋아하기에,

저를 잡아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저 게리 씨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말로 게리 씨를 믿는 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여러분께 증명해 보여드려야 합니다.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게리 씨를 믿는 다는 것을  
보여드릴까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고 그럼 다음에  
만약 제가 게리 씨를 믿는다면...

게리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신뢰한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다는 것은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실제로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증거를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자신의 모두를 의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증거를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갖는 질문은:

어떠한 증거들이 예수님을 믿는 다는 것을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증명 할 수 있는가?

오늘밤 제가 여러분께 그러한 증거들을  
요한복음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관찮으시다면, 요한복음을 펴서서,

요한복음 20장 24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후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기록되기를: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가 우선 여러분께 이 구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 두 구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솔직하다는 점입니다.

이 구절에서 도마는  
열 두 제자중의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즉, 도마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의  
한 명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대변인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초대 교회의 초기 리더 중의 한 명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도마에게 흥분이 되어 와서,  
말하길 ‘도마!

우리가 주를 보았어!’ 그러나 도마는,  
‘내가 그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도마가 초대교회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상상이 되세요?  
도마가 초대 그리스도 사람들과의 대화를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도마 선생님.

제자들이 선생님께 와서, 흥분되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  
그때, 도마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직접 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실을  
지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에어브러시 기능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포토샵 소프트웨어 – 제가 즐겨 사용합니다.  
에어브러시 기능 아시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게리 씨는 그런 거 사용안해도 괜찮아요.

그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진 정말 잘 나올 것 입니다.’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흰머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브러시 기능을 즐겨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용만 하면,

제 머리가 돌연히 완전히 까매져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젊어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에어브러시 기능 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애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유혹은 무엇이었을 까요?

그들을 당혹하게 할 수 모든 부분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려고,

온전히 진실을, 진실만을 말하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당혹하게 하는 부분, 그래서  
포함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도요.

우리는 도마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생각하건대, 방에 돌아와, 그의 친구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후회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제자들 사이에 그 전 분위기와  
그 후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도마가 방에 없었던 간에,  
그 전 분위기는 어땠을 까요?

제자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몇 년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 분을 따르는데 모두 쓴 것은

그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는 죽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본 적 있으세요?

있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어떤 것에 투자를 했는데

시간을 허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기쁨이 있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방에 흥분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 일어나, 말합니다. ‘도마!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하지만 어떠한 근거로 믿을 수 있을까요?

그저 자신에게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  
말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떻게든 믿으려고 했더니  
이제 믿게 되었어.’

또는 ‘우리는 믿어야만 해!’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

그럼, 도마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할까요?

도마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도마가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라고 말한 그의 친구들을  
믿었어야 했나요?

또, 아니면 그가 합리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는, 많은 사람들은 도마의 행동에 공감을 합니다.

‘뭘, 도마는 참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다. 내가 도마였다면,

나도 예수님을 직접 보아야 한다고 말했을 거야.’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말할 것 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죠.

있잖아요. 도마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예를 들자면,

시몬 베드로가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 자네는 절대로 믿을 수 없을 거네!

글쎄, 누가 왔다 갔는지 아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나?

내가 안드레 (시몬의 형제)와 카드놀이를 했는데, 글쎄, 내가 이겼다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도마가 ‘정말, 자네가 정말로 이겼나?

증거를 대보게. 정말 믿어지지 않네.’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다면, 도마는 그저 ‘알겠네.’ 라고 말했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 큰 주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전화를 받는 것이 참 기쁘네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하실 때,

어떻게 지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때는 저에게 말씀하시길,

‘리아, 너의 아버지와 내가 오늘 한 일을 말해주마.’ 제가, ‘뭘 하셨는데요?’ 여쭙면,

저희 어머니는 ‘아이스크림 먹으러 나갔다가 왔단다.’ 그럼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혹시 영상 촬영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아이스크림 드시는 것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도마의 친구들은 죽으신 메시아가 육체적을 다시 사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마가  
'믿기 위해서는 직접 보아야 한다.' 말한 것에

우리는 동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도마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증거를 원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맹목적인 믿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증거에 대한 합리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서둘러

도마를 본받을 자로 따르기 전에

왜 우리가 도마의 태도를 따라서는 않되는지  
먼저 제가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21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한 주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길,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를 칭찬하시진 않으셨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말하길,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단번에 눈치를 채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조용히 시키시진 않으십니다.

“도마, 조용히 하거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어떻게 네가 나보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목소리를 낮추거라  
네 멋대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의 주인이자 천하의 주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은 즉 내가 온전히 신성하다는 뜻이다.  
목소리를 낮추거라, 도마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서는 도마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도마는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하나님이며,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신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받으시지만,

도마의 태도에 대해서 전혀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야, 잘했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와 같은 태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지녀야 한다.

너와 같이 “믿기 위해서는 직접 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지만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는 무슨 뜻 일까요?

여러분 중에, ‘그럴 줄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연히  
“너는 볼 수 없기에,

눈을 가리고 어둠 속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30절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함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시겠죠. 이 구절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실 때,

믿을 만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데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예수님을 보았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쓴 신빙성 있는 증언 때문에  
믿는 사람을 말씀하신 것 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자면, 예수님께서서는 도마가  
애초에 친구들의 증언을 믿어야 했던 것처럼,

나중에 증인의 말을 믿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친구들의 증언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나는 무언가 더 필요해.  
책에서 단순히 말해 주는 것보다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을 내릴 때  
믿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 필요하다.

책으로는 부족해. 이거보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나는 직접 봐야겠어.

가능하다면, 예수님을 직접 만져볼 수 있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짧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실 필요가 없는지 이유를 말씀 드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직접 볼 필요가  
없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상적인 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일 법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배심원이 해야 할 일을  
상상해 보세요.

범죄가 일어났고,  
배심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된 사람에 대한

평결을 내리기 위해  
모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배심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배심원들은 범죄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들은 몇 칠에 혹은 몇 주에 걸쳐  
모입니다.

배심원들에게 증거들이 공개되고,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각종 증거들이 제출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는  
증인의 증언입니다.

만약에 다른 어떤 사람이 보았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실상,

다수의 증언이 있다면 최상의 상황입니다.

그런 다음에 배심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증인들을 신뢰할 수 있고 확실하다면,

증인들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매일 세계 각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배심원이라면,

‘죄송합니다. 평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증언을 믿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 크고, 삶을 바꾸는 결정들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직접 본 사람들의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을 반드시  
보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입니다.  
전세계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큰 계획을  
아실 것 입니다.

이 것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을  
전 세계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전세계를 바꾸려는 방법은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

그들이 나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최상의 소식을 전세계에 전달할 계획은  
이러한 책에 쓰여진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입니다.

그럼, 몇 분 동안  
왜 이 책에 쓰여진 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려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밤 제가 벌써,  
논의의 여지가 있는 몇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조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시고,

잠시 뒤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Identity – Who is God? Who are we?

© Lee McMunn, 2011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may be permitted by the Copyright Act,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ublished b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 Limited.

All Korean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 Korean Bible Societ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com  
Unit 19 Common Bank Industrial Estate, Ackhurst Road, Chorley, PR7 1NH, England.  
Email: info@10ofthose.com  
Website: www.10ofthose.com